

새로운 시대정신창조투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집단적혁신으로 일으키는 비약의 불바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첨정신을 창조함에 대하여 주진경에하는 원수님의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본격적인 공사제철에 들어와 건설실적을 부쩍 높이며 신심있게 내달리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자들은 4월에 이어 5월에 더 높은 공사실적을 올릴 열의에 눈부신 전투를 벌였으며 3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은 11만㎡, 성토는 5만 5000m³, 콘크리트치는 7만 7000m³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당일에 다진 맹세를 지켜 언제와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전민적발전소구조물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혹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천강공사의 본래를 넘지않고 보여 주려는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끝없는 총투쟁과 불굴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철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려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각지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가건설감독성, 상업성, 수매업정성 등의 일꾼들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건설장으로 달려나가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첨정신창조에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최고검찰소, 교육위원회, 립업성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을 찾아가 돌격대원들이 청천강을 보며, 애국의 강으로 건넌 시기를 위한 거대한 대자연조건 속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칠 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기 위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제기에 완공할대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념사를 피우는 심장마다에 새겨진 것은 체신성의 일꾼들이 많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서든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첨정신창조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타오르도록 있는 속에 충성전건설장에서 더욱 비약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전력공업성령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쉼 없이 밤낮을 서고있다.

최전 12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도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연이어 공사와 발전기실, 취수구비, 물고기길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올리고있다.

최전 6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에서는 우안연제수문기둥터립과 동시에 좌안기둥터립을 위한 성토와 가설다리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최첨정신창조투쟁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있다.

최전 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해 대한 확신과 열정 넘쳐 영웅적위훈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고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력공업성령단의 지휘관들과 정부원들은 충성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전진열기목표를 높이 내세

우고 한결같이 떨쳐나 공사장마다에서 치열한 공격전을 벌이고 있다.

김문학, 윤정관동무들 비롯한 려단지휘관들은 공사의 선 후차를 바로 정하고 전진열기를 진행할 구간에 미리 확정한 데 이어 주요지점인 애자가 도착하는 차제도 전진열기구를 구간별로 섬멸전의 방편으로 해 가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합경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장으로 기동전개한 첫날부터 충성전운안전투를 완강하게 벌이고 공격조작을 짜고들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수심기의 철람구간에 대한 선들이 기가체를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합경남도, 평양시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서로 돕고 이 끌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많은 선들이기과제를 해체하였으며 남포시와 평안남도려단의 전투원들도 평등한 열의에 앞선 투쟁을 벌여 충성전투를 선도하는 선들이기과제를 높은 공사실적을 올리고있다.

최전 1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도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연이어 공사와 발전기실, 취수구비, 물고기길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올리고있다.

최전 6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에서는 우안연제수문기둥터립과 동시에 좌안기둥터립을 위한 성토와 가설다리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최첨정신창조투쟁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있다.

최전 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해 대한 확신과 열정 넘쳐 영웅적위훈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고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력공업성령단의 지휘관들과 정부원들은 충성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전진열기목표를 높이 내세

송전선 1회선열리기공사 결속

전력공업성령단에서

송전선 1회선열리기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충성한 기세로 매일 천수백m 구간에 대한 전선열리기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기일을 훨씬 앞당겨 공사를 전부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해 대한 확신과 열정 넘쳐 영웅적위훈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고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력공업성령단의 지휘관들과 정부원들은 충성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전진열기목표를 높이 내세

청천강반으로 달리는 애국의 마음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철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려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각지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가건설감독성, 상업성, 수매업정성 등의 일꾼들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건설장으로 달려나가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첨정신창조에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최고검찰소, 교육위원회, 립업성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을 찾아가 돌격대원들이 청천강을 보며, 애국의 강으로 건넌 시기를 위한 거대한 대자연조건 속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칠 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기 위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제기에 완공할대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념사를 피우는 심장마다에 새겨진 것은 체신성의 일꾼들이 많은

영웅적위훈으로 열어제긴 진격의 돌파구

남포시려단에서

물막이공사를 립체적으로 벌였을 큰 작전을 세웠다.

려단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굴착기, 유압식삽차,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을 앞세워 연이어 공사를 벌여나오며 연이어 공적들을 높이 올리면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사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전투적업무를 받아안고 공사장에 새로 전개한 첫날부터 원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련이 전 투를 벌려낸 이들이었지만 수위 가 높고 물살이 빠른 불리한 지대적특성으로 빠른 공사상과 시한이 없었다.

려단일꾼들은 결정적으로 가물막이공사에서부터 기성판에 깨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가를 최대로 단장하고

의 토사 및 암반굴착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성되어 콘크리트기에 진입할수 있게 되었다. 려단전투원들은 그 기세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콘크리트치기를 벌였으며 4월과 5월에 높은 굴착 및 타임실적을 올려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전에는 좋은 권리조차 없다는 려단의 전체 전투원들의 결사투쟁의 정신, 백첩불굴의 투쟁정신에 떠받들려 최전 12호발전소건설의 전망은 더욱 확고히 열리고있는 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버섯기르기를 대대적으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전성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는 해마다 여러가지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관리소의 구내에 번듯하게 일떠선 200㎡의 버섯재배실에는 발효실과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들이 푸르려 사계절 여러가지 버섯을 기르고있다. 품을 들인것만큼 그 덕을 보고있다.

20㎡와 200㎡ 몇몇개지만 하여도 관리소에서는 20㎡ 더마나한 방식에 버섯을 재배하였다. 그러다나니 별로 덕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로 임명되어 단위실체를 료해하던 모란봉구역채과도매소는 버섯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로 널리 소문났다.

이웃으로는 버섯재배경험을 배우며 여기서 생산된 활강탕원종균과 비닐구리에 넣어 배양한 재배블로크를 구입하기 위해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일대 단위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버섯도 많이 재배하여야 합니다.》

도매소장직에서는 버섯

품을 들인것만큼 결실이 크다

보전성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

신작의 모범은 종업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었다. 보전성의 일꾼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나섰다.

종업원들의 열의가 양상되어 따라 결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그럴수록 기질원료를 확보하고 버섯재배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일꾼들의 걸음도 더욱 빨라졌다. 마침내 6개월 만에 관리소의 구내에는 모란봉구역채과도매소 200㎡의 버섯재배실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그때부터 버섯재배는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재배공들의 열의도 부쩍 높아졌다.

앞선 재배기술을 적극 배워 관리소에서는 앞선 재배기술을 남겨두고 배우고 실전에 도입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고있다.

온돌식발효법으로 생산성과 확대 모란봉구역채과도매소에서

기르기를 3대혁명붉은기정원운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내밀고있다.

여러해전 이웃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버섯생산을 실리게 할수 있는 100㎡의 종균장과 150㎡의 재배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그리고 도시에서 버섯재배를 안정하게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생산량을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논벼의 병해충과 피해막이대책

위 내해는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협동농장들에서 병해충 피해가 없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논벼의 병해충피해를 막자면 무엇보다도 예방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올해 불볕에 평년에 비하여 전 반건조가 기운이 높아진 조건에서 겨울나이를 하는 논벼주요해충들의 발생시기가 서해안에서는 10-15일정도, 동해안에서는 7-10일정도 앞당겨졌다. 그러므로 협동농장들에서는 예방사업을 잘하고 모판과 모내기 시기를 잘 조절하는 방법으로 없애줄수 있다.

논벼의 해충피해를 막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농약은 선택 해충들의 생태학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농업기술적방법들을 적극 리용하면 그 피해를 막을수 있다. 버뮤코리비베는 겨울내 장성에서 모판으로 이동하는데 논벼에 일정한 간격으로 잠복숙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많이 모여든다. 이런 특성을 리용하여 아침마다 잠복숙에 모여든 엄지비베를 잡아엿을수 있다. 이 벌레는 하루에 10-13번정도 물속과 벼벼루로 오르내리는 벼에 가장 많이 붙는 시기는 오전 11-12시, 오후 3-4시이다. 이때 뿌리채를 잡을수 있다. 벼벼루는 날이 밝아오기 전에 사면에 살을 뿌리며 모판에서 농약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세대벼



